

수기 공화국은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전승의 날인 7.27입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래와의 전면대결전에서 통장훈을 부르고 승리의 단상에 놓여 울랐던 역사. 그날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69번째 너를 새기고 있습니다. 전승 69초! 불러보고 또 불러봐도 뿌듯한 긍지와 크나큰 자랑으로 가슴은 한껏 부풀어오릅니다.

그렇게 놓고보면 세월이란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0여년전 《조국보위의 노래》를 합창해 부르며 원주격멸의 길에 나섰던 10대의 재판관 젊은이가 이제는 90고령의 늙은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속에 는 하늘도 요연해 흐려지고 흠뻑 젖어 불타던 그 나날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었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던 못잊을 그 시절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뜻밖에 틀어막힌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과감히 이겨내며 새로운 승리로 또 다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해의 전승일은 사랑들의 가슴에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하건대 오늘이 방역대 전에서도 공화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그 누구도 영원히 가질수 없는 가장 강위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집에는 뜻깊은 기념사전을 한복을 꼭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4차 전국로병대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여 경여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전을입니다. 참 뜻깊은 사진들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며 저는 잊지 못할 그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곤 합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 때마다 우리 전령로병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승승》, 《전리미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러전을 다진 주인공》, 《승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승승》,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고마운 은인들이며 침묵의 승승들》로 거듭 앉 높이 불러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귀에는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로병동지들이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여하는 그이의 음성이 어제편듯 울려옵니다. 경여하는 원수님의 은정님이 이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 초우초우로는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년 세월 철창속에서 갇혀있다가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한 흔적 없고 나무 한그루 심은적 없는 저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는 그저 마음뿐이건만 고이게는 로병대회 때마다 불러주시고 매번 주석단에 앉혀주시니 하늘같은 사랑과 사랑을 눈에 훤히 들어간들 어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이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여하는 원수님의 대개를 사랑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전쟁로병으로, 온 세상이 다 아는 신병의 강자로 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로양장군에게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고 오 이렇게 전승 69초를 가까이 하고보니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50년 저의 나이는 18살이

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약한 저를 두고 온 부대가 몽땅 《꼬마》라고 부르던 일입니다. 그때 구대원들은 어린 나를 두고 걱정지 않았지만 그 《꼬마》가 한강을 단숨에 도하했고 전우들의 피로 풀어버지던 막동장까지 용감하게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도 굴절없이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마음달라졌고 별칭의 기상 안고 재진격의 길에 올라 위대한 승리의 날, 전승의 날을 땀이 맞았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던 제가 펜을 총으로 바꾸어주고 전선으로 달려나간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 내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은 조국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던 제가 전쟁 3년간 단 한번의 동료나 번식이 없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것은 우리 전사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육친의 사랑이 전부로 흘러들었기때문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설이 꽃피니 세상을 깜짝 놀래웠습니까.

가지가지 많고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211고지용사들에게 풍나물을 길러 먹고먹고 공을 보내주시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1211고지방위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그 전설의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시는 온전어린 풍을 받아안고 격정에 넘쳐있던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그 공으로 풍나물도 길러먹고 비지도 해먹고서 영웅의 고지, 1211고지를 지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포를 고지우로 올려다놓고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긴 통쾌한 전투가 바로 그때 있던 전투입니다. 예로부터 사랑은 집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종화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건강이 넘어져서 부식물까지 걱정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같이신분을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있던 말입니다.

하기에 외국의 한 남성문필가는 자기의 글 《천출명장 김일성 : 미국을 슬프게 하라》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차타한 병영생활속에서, 전쟁의 폭풍속에서 사랑과 정이 파멸했던 세계군력사, 전쟁사에서 종지부를 찍으셨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랑과 정이 열쇠로 병사들의 심장의 문을 열고 인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천출명장이셨다. 무기는 누구나 가질수 있다. 하지만 명장의 사랑과 인민의 보담으로 이루어지는 단결의 성세는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다. 조선만이 가진 성세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원수를 이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당시 락동강까지 진격해나갔던 저는 부대를 따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련이 부족해서인지 우리가 후퇴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들은 막아보려고 별의 별 술책을 다 썼고 앞편에 던진 격으로 식량까지 떨어졌던 행군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온종일 꼬박 굶으며 행군하기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배고플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곁에서 걷는 지휘관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 힘들지? ... 그때

도 우린 꼭 장군님께서 계시는 복으로 가야 해.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며칠 전 《조국의 촛등을 피로싸 사수하자》는 방송연설에서 적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대와 빨치산들 그리고 전체 후방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막아낼수 없다고 하시었다누만 믿으라요. 장군님만 계시면 살길도 열거야 전쟁에서도 이긴다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은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장군님만 철대적으로 믿고 따랐다고 세계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었던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은 인간생활에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옥중투쟁은 세계영웅사에도 없는 투쟁입니다.

제가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기선생이 전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리유는 하나, 수령님께서 계시는한 우리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전쟁의 나날 저의 가슴속에 신병의 기동으로 깎이 뿌려내렸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과 인민, 겨울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자기 평도자에 대한 믿음을 불가항력으로 간결한 전체 인민과 군대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전쟁의 충도성이 벗은 때로부터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침략 책동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세계를 대대양속을 빠뜨린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어제는 평화였기 그리

6월뒤에는 7월이 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대 3년간의 가혹한 조국해방전쟁이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이후에 그 말은 새로운 의미를 담고 불러워지게 되었다. 6.25뒤에는 7.27이 있다!

의미심장한 이 말을 조용히 새겨보느라 보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우두머리와 맞서싸워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긍지감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 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어느날 밤 전선길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복으로 행진해가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인들중에서 제일 어려보이는 대원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으시자 그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대원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투명령을 받으리 간다고 합창해 대답하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인민군전사들만이 아닌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고있었기에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원수들을 무릎꿇고 소를 대신하여 발을 갈면서라도 알곡생산을 늘어 전선에 더 많은 쌀을 보내주었으며 나이런 소년, 소녀들이 총과 수류탄을 잡고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겨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것이다. 전 미공수장관 마셜은 《신화는 깨어지고말았다. 미국은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실도했다.

미국의 패배는 우리 공화국을 잘못 보고 덤벼드는데 있다. 공화국인민의 전투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셨다. 또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이고 진리임을 뼈에 새기고 진정한 인민의 국가인 공화국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인민과 군대가 있었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어느 누가 당할수 있다 말인가.

미국의 함동참모본부의 장브래틀리가 6.25전쟁을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미국이 두고두고 새겨야 할 교훈적인 말로 되었다. 하지만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은 전후에도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정치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무장간첩 《푸에블

로》호침입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침입사건, 판문점사건, 1990년대의 핵소공과대조선압살책동...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지만 미국은 이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단 0.001mm도 침범할수 없었으며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할 생활, 아름다운 꿈과 밝은 미래를 빼앗을수 없었다. 오늘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는 대비가 되지않고 그 힘과 지위가 최대로 강화되고 높이졌다. 조선은 절대적힘을 지닌 세계의 최강국이 되고 이것은 세계의 력학관계와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 위대한 공화국을 이끌고 승리와 기적만을 안아오시는분이 천출명장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입니다.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초를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행진에서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언명하시였다. 지금 공화국의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되어있다는데 대하여, 어떤 세력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수차례 패배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공화국에 덤벼드면 중국적인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승리는 불세출의 평양을 높이 모신 조선의 것이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몽거버리며 (1)

공화국은 지난 시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도발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국권과 인민의 안일을 견결히 수호해왔다. 강대강, 정면승부, 이것은 공화국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며 일관한 립장이다.

전쟁도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어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리승만도당을 사육하여 건국연명으로 불렀던 평화로운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왔다.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불과 2년, 정규적무력이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었다. 이런 공화국과 조선인민을 앞잡아보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것이다.

《아침은 해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조선의 운명은 《72시간내에 결판》 나게 될것이라고 침략자들이 쾌신이 땅발을 통해서도 미국과 리승만도당이 공화국을 얼마나 앞잡아보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침략세력은 오산하였다. 미국이 북침전쟁을 개시한 첫날 내각비상회의가 진행될 회의실쪽으로 나오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당

대한 배향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한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공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그렇다. 미국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적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공화국의 군대는 즉시적인 전선에 걸쳐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제때에 좌절시키고 전 전선에 걸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군대는 세계에서 오직 만고절세위인의 평도를 받는 조선인민군뿐이다.

침략세력을 무찌르며 남침의 길에 오른 인민군대는 전쟁에서 3일만에 서울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불과 몇개월만에 남중부 전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다. 침략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적들의 기도를 달성하지 못한 미제침략자들은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으로 공화국복부 전 지역을 장점하겠다고 미쳐날뛰면서 새로운 《총공세》를 벌렸다.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의 무모한 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11월하순 전 전선에서 총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전선서부의 인민군부대들은 천천장지역의 여러곳에서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었고 전선동부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장진호반대에서 미군을 포위섬멸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제2전선부대들은 강력한 배후타격을 벌려 적들을 격멸소탕하였다. (11월 23일)전에 전쟁을 끝낸다고 호언장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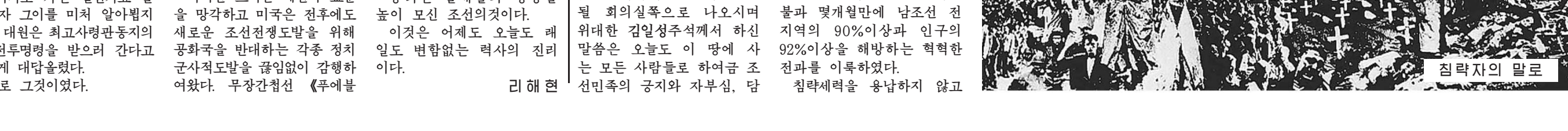
그러나 인민군대의 강력한 반라격전과 제2전선부대들의 맹렬한 활동에 의해

이뿐이 아니다. 그후 미국이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감행한 《하기공세》, 《추기공세》, 《김화공세》, 《교살작전》, 《초토화작전》, 《신공세》 등 온갖 협력적인 《공세》와 작전들도 위대한 평양의 평도를 받는 공화국의 인민군대에 의해 여지없이 격파되었다. 공화국의 연속적인 드센 타격에 의해 막다른 궁지에 빠져 더는 다른 출로를 찾을수 없게 된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수차례로도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탁월한 수령의 평도를 받는 영웅조선인민과 군대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력사적 사본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연선

이런 날을 기억하여 영광스러워
전쟁의 영광을 지어내
전쟁의 영광을 지어내
전쟁의 영광을 지어내
전쟁의 영광을 지어내
(1953년 7월 27일)
침략자의 말로

준비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존안에서 저는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사랑과 믿음이 없는 인간생활을 생각할수 있었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사랑과 믿음이란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경여하는 원수님처럼 위대한 사랑의 세계,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신 인간사회의 최고화신은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은 경여하는 원수님만 믿고 한마을 다해 따르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도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방역대 기술적수요보다 인민들의 자각적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 더 인민들에게 의거하는 전진항전, 전진함세로써만 대승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여하는 그이의 실상에 자리잡은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여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약성전선병과 싸움에서 이기는 불사악이 되고 커다란 힘이 되어 오늘의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라게해 가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수많은 살상검찰과 대규모는 실용장전 등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공화국,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방역대전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나라, 사회주의조선은 사랑과 믿음으로 강하고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오늘의 세계는 불안과 위기로 가득차있다.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하여 산생된 보건위기, 방역위기는 수많은 다른 위기들을 연이어 산생시키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불신은 인류의 생활과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후호의 동요나 불안, 위구도 찾아볼수 없다. 사람마다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회열에 차있다. 화성신화장조의 열풍속에 기적같이 솟구쳐오르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장쾌한 전경은 바로 그 신심, 그 확신을 백배해주는 격동의 시대의 산화축, 온 나라를 걱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는 변이 나는 세월의 또 하나의 보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작품의 발과목음이 울린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건물골조공사가 연이어 결속되고 내외부벽체미장과 지대정리, 봉사망건설 등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자기의 특색있는 문화를 완연히 드러낸 멋쟁이거리,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장쾌한 《숲》을 이룬 화성지구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킨다. 사실 이곳 건설자들이 말하고 있는것처럼 모든것이 어렵고 강고하다. 더우기 돌발적인 방역위기는 공화국에 있어서 건국 이래 대동단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첫삽을 박던 지난 2월은 물론이고 3월, 4월에도 기초공조크리트리기가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지고 살림집골조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키를 솟구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의 분분초조가 흐르는 속에서도 단 하루, 한시간의 공백도 없이 공사는 계속 줄기차게 다그쳐진것이다. 과연 그 기적의 힘은 어디에

창조로 들끓는 사회주의조선의 축로-화성전역

있는가. 건설에 동원된 한 로력혁신자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직면한 애로와 난관은 말 그대로 사상초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연포은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계기일انه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진정은 우리모두에게 지침될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숙원!

이 말의 참뜻을 새겨볼수록 자연의 대제양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금천구 강북리를 찾았이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치 않게 언저를 스치는 이번

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저들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인들에게 감사사를 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의 숙원, 그것은 인민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시기에 류정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았이어서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 전부터 주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었다고 거듭 되뇌이셨고 새로 일떠선 종합남새은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은실

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절절히 이르시었다. 어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금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순박하고 기대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면 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와 결심이 더욱 굳어지곤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의 무게를, 일꾼들은 인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늘 생각해 보며 오직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 인민들이 바라는 일만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간곡한 당부에 어린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를,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

사 온몸이 젖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질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의 투철한 인민관의 열도를... 진정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을 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며 그 길에서 천만교생을 달게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뜨거운 진정이야말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무비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투쟁의 활력소, 전진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

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신 소식을 접하였을 때 온 화성지구가 눈물 의 바다를 펼치었다. 《인민을 위 하시는 우리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진정에 우리모두는 불사신마냥 일어났습니다.》 《인민에게 닥쳐오는 불행울 함부로 막아서시는 위대한 인민에 대한 불같은 생각이 자리를 차고 건설장으로 달려나간 우리들입니다.》 이는 화성지구 건설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비상한 속도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은실농장이 일떠서는 런토지구, 날마다 시간마다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변모되는 검덕지구, 아니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울려나온 격정

의 토로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하루가 몰라보게 진척되고있다. 건설장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화성전진, 화성신동의 북소리, 곳곳에 나붙은 《당이 정해준 시간애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시간이어 따라라》, 《걷는자는 비켜서라》 등의 정신이 번쩍 드는 힘있는 전투호수들은 평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이곳 건설자들의 드높은 충정성의 뜨거운 분출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이렇게 전진하고있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순간의 멈춤없이 솟구쳐오르는 이 기적이야말로 위대한 아버지의 현명한 평도따라 평명한 미래를 향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축도이다.

한영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사 진행(2022년 2월 12일)



전진과 비약의 활로를 밝히주는 빛나는 예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은 독창적이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공화국이 나아가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걸출한 평도자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8기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를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멸의 새시대의 혁명적대건설대령을 마련하시고 정력적인 평도로 이번 특별강습회를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빛내어주시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평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돌아보보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급변하는 정세추이를 깊이 연구분석하시고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로선들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을 밝힌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진회의로부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때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금 후 대미대응방향이 토의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전인민적추진군을 가속화하는데

의의깊은 계기로 된 조선로동당 제2차 조급당비서대회, 건국이래의 대동단이라고 말할수 있는 돌발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여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밝혀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와 올해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이 가속화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진회의 확대회의. 이뿐이 아니다.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일부들을 확정하며 당의 군사 로선과 주요국방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와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승리와 성공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은 그대로 만 사람의 가슴가슴을 찬란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끝없는 희망으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거대한 사변을 안아오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극조음속미사일시험발사, 전술유도탄점수사격시험,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점멸사격훈련, 두차례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식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국제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국방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에는 회한한 대건축군을 이룬 송화거리가 완공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인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간담타락식주력구가 일떠서는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지금 화성전역과 연포은실농장건설이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으며 지방은 지방대로 농촌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소비품생산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이 땅에 건국이래의 대동단이라고 말할수 있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지만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전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하기에 세계인론들도 《김정은평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치의 동향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다.》, 《김정은총비서께서 비상한 결단과 예리한 통찰력, 능란한 외교술로 현 정치정세와 대외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 나가신다.》고 평하고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특출한 평도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도전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헤치시며 오직 승리에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오늘날에라도 인제나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만을 창조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작은 목선을 타시고

주제101(2012)년 8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27hp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해열 정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찾았시었다. 충격적인 이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한생 바다에서 사는 배군들도 파도사나운 날에는 섣뚱 띄우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검푸른 날바다길을 헤쳐가신것이다. 언제나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결코 험난한 조국수호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고계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심층에는 오로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억척으로 지키겠다는 결사의 각오가 새차게 굽어치고있었다.

조강도현지지도강행군

나라 인민들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결코 험난한 조국수호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고계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심층에는 오로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억척으로 지키겠다는 결사의 각오가 새차게 굽어치고있었다. 본사기자

은 실로 형언할수 없는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시었다. 그런데 쌓인 피로도 투실 사이없이 오히려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며 헌신의 길을 재촉하고계시는것이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아뢰이는 일꾼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세 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내가 맨 앞장에서 관철했다가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주겠는가고 마음속심중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

세계전쟁사에는 공화국에서처럼 전쟁시기 부상당한 군인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워주고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치료도 받고 마음껏 공부도 할수 있게 특별한 정을 아낌없이 부어준 레가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예군인들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제39(1950)년 8월 19일 내각결정 제151호로 영예군인들에게 국가정기보조금을 주도록 하시고 그해 12월 11일에는 내각결정 제182호로 영예군인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해주시었다. 또한 주제40(1951)년 2월 6일 토산위원회지시 제82호로 제대되는 상병자들에게 로동능력과 회담에 따라 직업을 보장해주고 각급 간부양성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능력을 상실한 무의무탁영예군인들도 영예군인보양수도에 보내어 그들의 생활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맡아 돌보아주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각지의 산수수려하고 경치아름다운 곳들에 영예군인보양소들이 일떠서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었으며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양액들이 영예군인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40(1951)년 3월 31일 영예군인들이 자기의 능력과 건강상태에 알맞는 직종에서 일할수 있도록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내각회의도 소집하시고 이를 위한 땅에 따라 직업을 보장해주고 각급 간부양성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주제40(1951)년 4월 13일 내각결정 제254호 《조국

본사기자 황금숙

여계의 통일속방을 돌아주시려고 (10)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역량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정사로 다방면 속에서도 소속과 거주지, 정견과 신앙이 각이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은 해외동포들 중에는 미국에 있던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교회연합회》 고문인 김성락목사도 있었다. 그는 고향땅도 밟아보고 북의 통일립장을 한번 들여보자는 생각에서 공화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공화국에 와서도 그는 통일문제에서 북의 방안에 동조하거나 말려 들지 않고 모든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도고한 자세를 취하였다.

한생을 거니 반공, 반북일변도의 사퇴현실속에 살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우리 겨레가 가야 할 진정한 통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주체70(1981)년 7월 어느날 수령목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애국지사로서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온 겨레가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사람들과 재미교포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공화국의 립장과 방안을 잘 해설해주어 아 한다고 하시며 아직 반공의 울타리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성락목사는 시종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친 교사를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우러르며 수령님이시야말로 겨레의 통일년월을 함몰에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위인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위인상에 감복하여 통일애국성업에 뛰어드는 동료들 가운데는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도 있다. 다 아나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외여론의 초점은 재미교포인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과 그의 일행의 공화국방문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문선명선생으로 말하면 《승공통일》의 구호를 들고 반공의 앞장에 서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가 공화국을 방문할수 있는것은 바로 온 겨레를 함몰에

해외동포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안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체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담화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 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

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문선명선생이 제기한 문제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며 앞으로 그 가 돌아가서도 공화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는 조국통일의 길에 여생을 바칠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어찌 이틀만이라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추진위원회(이하) 강일위원장, 해외동포작곡가 윤이상선

생, 재미동포 립창영선생, 최덕신선생, 재미교포노년기자 문명자선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외동포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살아온 경위와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가 누구이든 따듯이 품어안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량 정도가 있어 온 겨레는 사상과 립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련대하고 련합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던것이다.

김순철



윤이상선생



김성락목사



최덕신선생

최근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느니 뉘니 하면서 그 무슨 《전체조 건없는 대화》와 《외교적관여》에 대해 떠들고있다. 망둥이가 튀니 꼴뚜기도 된다는 식으로 윤석열역적패들도 덩달아 《전체조 건없는 남북대화》와 《대북 문제의 외교적해결》을 운운하고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기만적인 꾀비라 하였다.

우선 《북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는 미국의 주장부터가 그러하다.

미국의 말이 사실이려면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결할 의사부터 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은 어떠한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는 고사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북침을 노린 남조선,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다가 하면 전략사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들이밀면서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겨냥하여 판도에 B-52 전략폭격기를 전진배치한데 이어 남조선에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끌어들였으며 남조선 감침 미군의 전격증강을 위해 미국본토에 있는 《스트라이커》러던 전투단을 순환배치하려 하고있다.

더욱 엄중했던 것은 미국이 공화국의 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수행을 위한 특수훈련까지 공개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행위들이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공공연히 일삼으면서도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

기만적인 《대화》타령이 누가 귀를 기울이 겠다는가

미국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쁘게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한미화적협력의체》 재가동을 획의하였다.

미국의 부추김길에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주적론》을 내 놓고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원점타격》에 대해 떠들며 북침전쟁책동에 피는이 되어 날뛰고 있다.

제반 사실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고 하는 미국과 《전체조 건없는 남북대화》를 운운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행태가 저들의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이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윤석열패당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느니, 《대화》니 하는 기만적인 언동으로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뉘새를 괴워 내외여론의 환심을 사는 한편 공화국이 자위적 전쟁역적력을 강화하느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세상에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장본인 는 다름아닌 미국과 윤석열패퇴역적패당이다.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양으로 들을수 없듯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아무리 꼴뚜린 소리를 늘어놓아도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본색을 절대로 가릴 수 없다.

고영수

민족적자존심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정신적원동력

오늘 우리 겨레는 내외반동 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이겨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남남 못지 않다는 자부심이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려는 마음이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의지로 발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의 존엄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해 한복숨바쳐 나서는 사

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 민족은 남남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우리 민족이 창조해온 긍지높은 력사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위대한 전략가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조선민족의 기상을 떨친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있다. 친연강국으로 이름떨친 지금의 력사가 그러했고 지금도 세상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져오는 청성대와 훈민정음, 고려종우와 고려자기, 귀족학살,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같이 우리 겨레가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그

러하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와 민족의 흥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라는것은 70여년에 걸치는 공화국의 력사가 더욱 잘 말해주고있다. 최근 10년사이에만도 공화국인민들은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자각과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결사의 투쟁을 벌려 국가핵무력원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민족민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보를 굳건히 마련하였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것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

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도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존심을 확립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남남 못지 않다는 자부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의지를 지닐 때 조국통일을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이룩할수 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라면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의 통일

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상독소이다.

우리 나라를 들로 갈라놓고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에 게 환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면서 그에 굴서거린들 오히려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만들게 된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동족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적대시하고 침략적인 외세에 대해서는 《형평》으로, 《동맹자》로 떠받들며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는것은 북남관계에 파국으로 몰아가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재앙을 불러오는 매패책행위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온 겨레가 특등사대매국노들인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이 제 일이라는 강한 자존심을 지니고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짓부셔버리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6)

2000년 10월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돛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준비되고 있었다.

최홍희총재는 공화국을 또 다시 방문하여 여러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마침내 뜻깊은 경축행사의 날이 왔다.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소리가 하늘향을 진감하는 가운데 주석단에 나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단성원들속에서 최홍희총재를 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손으로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면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정말 해외에서 수고가 많다고 은정의 말씀을 하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이 우리 당창건 55돛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어 선생을 한번 만나주라고 한다고 하시었다.

10월 20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시간에 걸쳐 그를 만나주시고 언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시던 각별한 신뢰와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생이 조국에 올 때마다 오늘처럼

개별적으로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일정이 긴장하다보니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느라고 로고가 크다고 하시면서 그가 고행이지만 왕성한 날을 패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과 남의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사실 남조선군사파쇼 《정전》은 《세계태권도련맹》을 조작한 후 정통태권도의 분렬과 말살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세계태권도련맹》이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라는 《인정》을 음모적방법으로 얻어낸것은 그 단적실례였다.

한편 《세계태권도련맹》은 저들이 주관하는 태권도를 올림픽종목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연철하여 강행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태권도라는 명칭의 무술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올림픽경기종목으로 되자면 마땅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총재로 있는 국제태권도련맹의 태권도가 선택되어야 하였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두 태권도련맹의 통합을 제기했다.

참다운 태권도인들도 태권도의 순조롭고 통일적인 발

전을 위해, 두 련맹의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우리 민족무술이며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이며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조국통일의 앞날을 위해서 두 련맹의 통합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깊이 파악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선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르기까지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최홍희선생이 북남의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도 생각하고있다는데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일군을 부르시어 태권도의 통합과 그 발전을 위한 최홍희선생의 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총재를 위하여 뜻깊은

오찬까지 마련해주시고 그와 헤어질 때에는 나이많은분이라고 그를 먼저 내세워주시며 문앞까지 나오시어 배웅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당부도 하시었다.

최홍희총재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문석사자라, 아침에 전리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는 말과 같이 늦게나마 참예국을 알고 오늘은 태권도의 통합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최홍희총재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문석사자라, 아침에 전리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는 말과 같이 늦게나마 참예국을 알고 오늘은 태권도의 통합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꼭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에 태권도통합으로 보답해야 한다.》

본사기자

1980년 광주에서의 대중적인 붐기

광주인민봉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벌어졌다.

1980년 3월부터 남조선전역에 로연의 불길처럼 타빈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전두환도당이 《유신》파쇼독재를 지행하기 위하여 5월 17일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것을 계기로 하여 광주땅에서 반 《정부》적인 대중적무장인민봉기로 전환되었다.

인민봉기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비상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대 청년학생들은 군사파쇼도당이 가장 악질적인 공청부대(악학산부대)를 내몰아 류혈적인 탄압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억압자들에게 폭력으로 항거하여나섰다.

청년학생들의 폭동적진출은 삼시에 온 광주땅을 휩쓸었으며 여기에는 시내의 모든 인민들과 시주변의 로동자, 농민들까지 합쳐서 그 수는 5월 21일에 무려 30여만명에 이르렀다. 봉기군중들은 도청, 시청을 비롯한 통치기관들을 들이쳐 그를 장악하였고 농들의 무기를 습격하고 수천정의 무기를 탈취하였을뿐 아니라 《계엄군》의 많은 탱크와 차량들까지 빼앗아 타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5월 21일에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를 완전히 자기들의 통제 밑에 넣었다. 항쟁의 불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열고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할데 대한 작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방부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에 직속된 남조선군 2개 사단을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는데 동원하는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군부에 넘겨준다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어 미국대통령 안전담담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는 《무주저묵으로 광주의 반도들을 진압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미군까지도 폭동진압에 동원시킬것이라고 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범은 바로 외세인 미국이며 반미자주화가 없이 남조선인민들이 바라하는 민주와 조국통일도 이룰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명이 참가한 영웅적광주인민봉기

본사기자 전영민



장송곡의 전주기가 울린다

아내고있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제라도 선거를 다시 치르어야 한다.》, 《윤석열의 퇴진집회를 개최할것이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 것이다.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는 탄핵의 대상으로 된 현실은 역도와 현 보수 《정권》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환멸과 반감의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거세어지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탄핵운동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광풍, 강권과 전횡, 부정부패정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각계의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쏟아부어 초조화위임직을 빌려놓았고 측근인물들과 검찰총장, 부정부패전과자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겨 《검찰공화국》, 《끼리끼리 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들었다.

선거때 내뒀던 《장미빛

서역역도에 대한 탄핵운동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광풍, 강권과 전횡, 부정부패정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각계의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쏟아부어 초조화위임직을 빌려놓았고 측근인물들과 검찰총장, 부정부패전과자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겨 《검찰공화국》, 《끼리끼리 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들었다.

선거때 내뒀던 《장미빛

대결복등을 두드려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역스러운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검찰과 경찰 등을 반공화국대결복등에 내몰다 못해 외교부까지 동족대결부조림 전국이 윤석열역적패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있는 동족대결광풍, 추악한 사대매국이다.

은 민족이 윤석열역도에 두들겨 맞는것을 못마땅해 볼가하는 반통일대결광풍이라고 단죄하면서 중요과 결정을 금지 못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아무리 반공화국대결복등, 《체제변천》에 메달려도 그것은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의 어리석은 높음을 지나지 않는다.

역적패당은 동족을 비방하는 잡소리를 제치며 동분서주할수록 얻을것은 수치와 램대, 파멸밖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문성

민정당을 구성하라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 무는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한국형 3축타격체》 구축에 필요한 무기체계개발에 광분하는가 하면 《과학기술강군》의 육

성이라는 미명하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무기체계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과학기술협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무기개발을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사업으로 만들어보려 하고있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당황장조하여 벌리는 군사적력 세만하늘을 울리며 북진전쟁비중강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호전적방동이다.

공화국이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무적의 군사적강제라는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자위력을 웅대한 수준에서 군사적위협과 골종만을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차에도 지켜낼수 없기에 공화국은 자위적전쟁역적패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틀어쥐고 적극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공화국이 지닌 절대적인 힘이다. 허나 그가 누구이든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을 놓고 근심고민을 하며 불안해할 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있지도 않은 그 무는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한국형 3축타격체》 구축에 필요한 무기체계개발이니, 방위산업의 첨단화 하니 하는것은 어떻게 하나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을 품고있기때문이다.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상전도 두려워

하며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미국의 식민지전쟁사수인, 대외발매와 불과한 윤석열역적패당파위가 맞서보겠다고 설치하는것이야말로 버마제비가 수레를 버티어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비현대화책동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것은 물론 가뜰이나 어려운 남조선의 민생고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민적범죄행위이다.

오늘 남조선경제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복합위기를 겪으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6월에만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 역시 역대 최고에 달하고있다. 과거에 없었던 4대위가 더쳐들면서 대기업의 35%이상과 산직전에 놓이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련달라 폐업당하면서 실업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천문학적인수액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군비확장에 퍼부으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동족대결에만 미쳐달려는 천하적패당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제 처지도 능력도 모르고 야망에 들뜬자보다 더한 바보는 없으며 헛된 망상에 노는 수치스러운 결말이 따르마라된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무기개발과 방위산업강화책동은 저들의 비참한 자멸을 앞당겼다.

장형범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탄핵운동이 일정에 오르고있다고 한다.

《대통령》 감투를 쓴지 70여일만에 가련하게도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신세가 된 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리적탄핵심판을 내린 상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무지무능한 아마추어정권》, 《불통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극우보수세력들속에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

대결공조나들이로 얻을것은

얼마전 피뢰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개국 위무상회의기간 미국, 일본을 비롯한 회의참가국들과 량자 및 다자회담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북핵, 미싸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한미일3자안보협력확장》 등을 떠들며대며 국제적인 대조선압박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났다.

날로 급상승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이에 공강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분간 못하는 우매한 추태라 해야 한다.

지난 세계초염 이 땅은 자기들 지킬 군사적의미 없이 대국들의 이익추구의 각축전장으로 화하였으며 끝내는 왜나라의 식민지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은 세계 무대에서 존엄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지난 3월 주재조선의 절대적립, 군사적강세를 시위하며 용용히 솟아오른 대륙간판도미싸일 《화성호-17》형식형발사기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과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였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자위의 억제력을

지닌 공화국을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정의의 부르이며 힘인 공화국을 부러워하고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외세에게 군사주권까지 빼앗긴 식민지 《정권》의 송사리에 지나지 않는 외교부 장관파위가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색은 닭알로 칭바위를 깨보려 하는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숙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명성이 외교부 장관인데 하늘에 해가 났는지 달이 났는지 분간도 못하고 돌아치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회의기간 《국제적동추국가》 흥내를 내며 조선반도 주변나라 외무상들을 쫓아다니고 《북핵공조》를 운운하며

판수없이 늘어대다 램대와 배척만 당한 교락사니 또한 쫓겨볼것이다.

반공화국침략과 압박공조로 메달질한 외교부 장관의 대결나들이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병적인 동족대결증상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하자부터 공화국정권을 《주적》으로 삼고 수수방관할수 없는 호전적방동들을 쏟아내며 외세와 함께 북진합동군사연습들을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인종분례기들에게 기재까지 귀여주며 반공화국베라살포로 부추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부장들을 내몰아 밖에 나가서까지 남의 나라들에 보내

《윤석열이 명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테러고산다.》, 《윤석열은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대 《대통령》 후보였던 시그의 나편네 김건희가 한 소리이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바보 윤석열》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나편네가 여기저기를 싸다니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있지만 윤석열역도는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비호두둔하면서 명칭이 노릇을 하고있다.

나편네가 《1급보안사실》인 《대통령》 사무실내부를 내외에 공개하여도 그만, 《대통령실》에 자기 회사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님노살, 민간인들을 각종 행사에 끌고다녀도 못본척,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에 불응

하는것도 모르는척 한다는것이다.

그레놓으니 《대통령실》의 참모라느것들도 모든 의견을 김건희를 통해 역도에게 보고하고 검찰것들은 김건희의 각종 《국정》개입의혹을 외면하면서 《김건희수호대》로 자처해나고있다고 한다.

이런 실태임에도 윤석열역도는 김건희를 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큰 변이 날 것 같다. 김건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이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관리할수 있는 《2급보안사실》을 내외야 한다고 충고하는 보수원로들을 제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인 동에게 일 맡기는것을 선호한다.》고 두둔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윤석열역도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알아서 처리할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예언》과 《경고》에 따라 윤석열역도는 검찰, 경찰을 내세워 저들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무시해치우거나 무마시키고있으며 도리어 이전 《정부》출신과 야당의 인물들을 직권탐용, 권력행사방해, 부정부패 등의 의혹혐의로 정치보복의 마구잡

이식수사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지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노동운동단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한다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자기의 추문과 부정부패행위를 공개한 진보언론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면 김건희의 복수극》으로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나편네의 치마바람에 휘청거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정치는 수렴정, 《안방정치》 정도가 아니라 《건희정치》인것이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국정》을 휘젓고 거꾸로 윤석열역도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있으니 권력의 자리에는 분명 윤석열이 앉았지만 그를 지휘하는 막후조종자는 《상왕》 김건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 남조선민심이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너자가 남자를 젓혀놓고 모든 일을 위락편락하던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나왔다.

너성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오

누가 《통와대》의 진짜 주인인가

이런 실태임에도 윤석열역도는 김건희를 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큰 변이 날 것 같다. 김건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이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관리할수 있는 《2급보안사실》을 내외야 한다고 충고하는 보수원로들을 제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인 동에게 일 맡기는것을 선호한다.》고 두둔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윤석열역도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알아서 처리할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예언》과 《경고》에 따라 윤석열역도는 검찰, 경찰을 내세워 저들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무시해치우거나 무마시키고있으며 도리어 이전 《정부》출신과 야당의 인물들을 직권탐용, 권력행사방해, 부정부패 등의 의혹혐의로 정치보복의 마구잡

회의 앙심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매정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보낼것이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고 회변특거리던 김건희가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겠는가 했던 우리가 윤석열역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김

건희의 복수극》으로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나편네의 치마바람에 휘청거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정치는 수렴정, 《안방정치》 정도가 아니라 《건희정치》인것이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국정》을 휘젓고 거꾸로 윤석열역도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있으니 권력의 자리에는 분명 윤석열이 앉았지만 그를 지휘하는 막후조종자는 《상왕》 김건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 남조선민심이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너자가 남자를 젓혀놓고 모든 일을 위락편락하던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나왔다.

너성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오

들의 문명사회에서는 통렬하지 않은 속담이지만 무지무능하여 초보적인 분별판단기능을 잃은데다 종새기의 미신에 빠져 《나편네의 앞치마》 노릇이나 하는 윤석열역도에게는 참고도 다시 들려주어야 할것이다.

하기는 자질과 능력, 품성과 정신상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바보스럽고 멍청한 윤석열역도는 그 말의 의미를 리해할수도 없을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되었다고 흰복을 뽐냈던 윤석열, 알고보니 나편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소인배, 나편네의 줄안에서 휘둘리는 《건희마당쇠》인뿐이다.

역도를 선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회할수 없는 비극이요, 세상사람들에게는 력사의 폐지를 들추지 않고도 깨달을수 있게 하는 교훈이 아닐수 없다.



뽐주한 이마뽏과 세쌍의 집개발, 긴 더듬 다니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과 독선, 뽏을 호느적거리는 감각류라고 하면 무엇 특단의 표현입니다.

이 떠오르니까? 지금 물의를 빚고있는 인사문제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0여명의 검찰출신심복물을 장, 차관의 요직에 앉힌것으로 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이라고 비난하니 《이전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다.》 하고 코방귀를 불어봈습니다.

나편네회사출신, 자기의 외가 6촌별, 40년지라고 하는자들의 아들들, 이전 집권자를 유희하는데 앞장선자의 누이 등 측근들과 친인척들로 《대통령실》이라느것을 꾸러놓고도 이에 대해 비난하는 민심과 여론앞에서 《이전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정면으로 엎치고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역도는 민심에 역행하면서 암흑의 과거에만 정신없이 뒤걸음치고있습니다.

가재는 폐지스토마의 증간속주하던데 윤석열이라는 《가재》는 독재광풍, 사대중양, 대결병과 같은 악성병균만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각계층이 옥욕합니다.

《윤석열의 인기는 시작하자마자 끝날것 같다.》, 《보수내부에서도 윤석열탄핵이 언급되고있다.》, 《윤석열퇴진집회 개최하자.》

법도 공하면 가재를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것은 공해사가 아니라 역도의 악행과 악정을 더는 참을수 없기때문입니다.

누구든 역도를 만나면 꼭 말해주십시오.

《여 윤석열, 저승사가 함께 가세.》라고 말합니다.

김정혁

이런 실태임에도 윤석열역도는 김건희를 통제하지 못하며 오히려 큰 변이 날 것 같다. 김건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이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관리할수 있는 《2급보안사실》을 내외야 한다고 충고하는 보수원로들을 제 《사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인 동에게 일 맡기는것을 선호한다.》고 두둔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윤석열역도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알아서 처리할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예언》과 《경고》에 따라 윤석열역도는 검찰, 경찰을 내세워 저들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무시해치우거나 무마시키고있으며 도리어 이전 《정부》출신과 야당의 인물들을 직권탐용, 권력행사방해, 부정부패 등의 의혹혐의로 정치보복의 마구잡

《로동자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남조선에서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 활발히 전개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로동계는 윤석열역도의 집권을 계기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안전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세계경제상황악화니, 기업들이 파산되게 된다는니 하며 로동계의 요구를 묵살해치우고있다.

오리러 쉬운 해고, 최저임금인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 반로동정책을 로 풀화하는 한편 로동계의 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해나서고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

지지는 런대성집회를 연이어서 진행하면서 로동계의 반 《정부》투쟁을 고무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에 격분한 《한국로동》도 회의를 열고 올해 로동운동의 방향을 협상에서 투쟁으로 전면수정하였으며 6년만에 민주로총과 공동결의대회를 가지고 반 《정부》투쟁을 벌리겠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로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최정선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인다

공화국의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로 탄원하는 열기가 나날이 높아 가고있다.

지난 5월중순 어느날 밤이었다. 자정이 훨씬 넘었지만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 2동에 살고있는 량심화녀성은 잠들지 못하고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것은 저녁식사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지 2년도 안된 외동딸 향별이가 한 말때문이었다.

《어머니, 난 오늘 탄원했어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은파군 대청리로 말이예요.》

딸의 결심은 장하고 미더웠지만 한편으로는 곱게 키운 딸자식이 선뜻 집을 떠나 농장으로 탄원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고급중학교 학생인 아들 명철이가 누나의 손을 잡고 말하는것이였다.

《누나도 탄원자대오의 한 사람이란 말이지. 야, 멋있구나.》

그러면서 아들에는 탄원자형님, 누나들은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애국자이러며 자기도 앞으로 누나를 따라 대청리로 탄원하여 농사를 잘 짓는데 한몫 단단히 하겠다고 하였다.

량심화녀성은 자신을 다잡으며 딸에게 말하였다.

《인생의 앞길에 대한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지만 주

흥적인 감정만으로는 실패하기가 쉽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밤이 깊어 모두가 잠에 들었지만 그는 자리에 누울수 없었다.

놀뭍는 조국의 숭결과 함께 하기 위해, 량심의 물음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워보며 무거운 짐을 끼어겨 걸머지려는 딸의 결심이 장하기 그지없었다.

이날따라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딸애가 더더욱 사랑스러웠다.

그로부터 얼마후 모두의 바래움속에 대청리로 떠나는 딸애를 손저어바래주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우것이 고여올랐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자식을 먼곳으로 떠나보내는 리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어디에 가도 사회주의에 국경년의 고귀한 청춘을 빛내여가길 바라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당부의 눈물이였으며 청년들모두를 억세게 키워주고 값있는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분출이었다.

어찌 그 하나만이라.

자본주의나라에서 청년들이 저 하나만의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도로, 도시로 모여들고있을 때 이 땅에서 수도 평양을 떠나 제일 어렵고 힘든 탄원으로, 협동별로 달려나가고 정

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신문과 방송, TV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에 대한 소식이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열혈청춘들이 탄원과 협동별, 대건설장과 섬마을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출향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평양시에서 수십여명의 청년들과 황해북도의 많은 청년들이 인민경제 주요부문에 탄원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수십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로 용약 달려나갔다.

경력과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가 청춘의 꿈과 리상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려는 청년들의 지향은 하나와 같다.

명도자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젊음으로 비약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별천안 절망의 나라에서 해매이는 청년들

공화국에서 청년들이 애국열, 혁명열로 심장을 불태우며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을 때 황금만능의 가치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극도의 절망과 비관, 염세와 타락속에서 헤매이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청년들은 빛으로 사는 세대, 역대 최대규모의 빚을 지고있는 《빚세대》로 전락되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청년들이 진 빚의 총액은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된것만도 4300억US\$이상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청년세대의 빚이 급증한 원인은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전락되고 정상적인 수입으로 살아갈수 없어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부등산과 주식투기에 뛰어들고있는데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부모와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이 저 하나만의 안락을 위해 사는 독신자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20, 30대청년들이 《벼락거지》(집값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 《이성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 등으로 불리워지고있다고 한다.

련애와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을 포기한 《7로세대》, 《삼자세》를 포기한 《삼포세대》 등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몇푼의 돈을 위해 부모, 조부모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와 같은 폐륜적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는가 하면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2021 자살예방



《환자들이나 친혈육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돌발적인 전염병전파사태로 하여 취해진 단위별 격리기간 공화국의 방역일군, 보건일군들과 함께 2400여명의 년로 보장자들이 자원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참가하였다. 년로한 몸이지만 스스로 전투원이 되어 환자치료를 도맡아나선 사람들을 보며는 대성구역 룡봉동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명희(65살)녀성도 있다.

보건부문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김명희녀성은 유혈자들이 늘어나자 의료일군들을 도와 인민반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맡아할 결심을 내리었다. 그런 김명희녀성에게 아들이 물었다. 종합진료소의 호당당의사들도 있고 방역일군들도 있는데 꼭 어머니가 환자치료를 해야 하는가고...

김명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각해봐라.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정에서 쓰셔야 할 상비약품까지 없고있는 인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돌려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고약국들에까지 찾아가지 않으셨니. 우리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두고 총비서동지께서 그토록 마음쓰고계시는데 내가 년로보장을 받았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겠나. 그

《환자들이나 친혈육을 잃었습니다》

것은 공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김명희녀성의 눈앞으로 꿈많은 처녀시절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일군으로 일해온 나날들과 여러 차례 국가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 나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질세위원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겨놓고 자기의 피와 피부도 서슴없이 바치며 환자치료를 모든것을 다 바쳐온 그였다.

김명희녀성에게 있어서 앓고있는 인민반사람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모신 화북족한 대가정의 한식솔, 친혈육들이었다.

하기에 그는 자기 집에 보관해두었던 귀한 약들을 아낌없이 내가 인민반사람들을 온갖 성의를 다해 치료해주었다. 낮에는 낮대로 환자 치료로 분망하게 보내고 깊은 밤이나 새벽에도 때없이 환자들을 찾아 아바트의 높고낮은 층계를 수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심하게 앓는 환자를 돌보며 지새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이 나날 그의 모습은 인민반사람들의 가슴속에 다식하고 헌신적이며 인정많은 어머니로 깊이 새겨졌다.

이렇게 김명희녀성은 단위별 격리기간 인민반의 근 50세대를 대상으로 치료사업을 진행하여 70여명의 주민들을 완쾌시켰다.

《우리 인민반의 마지막말 열자까지 다 찾아 치료해주고 김명희어머니는 그만 쉬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지...

《환자들이나 친혈육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명절이나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축하의 인사를 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곤 한다.

얼마전 나는 퇴근길에서 손님들이 평범한 운전사에서 하는 축하의 인사를 들으며 인간이 누리는 권리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였다.

요즈음 화력-서평양행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니는 손님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인것은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숙의 경루동앞도로를 지날 때마다 회한한 호화주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날마다 보고 또 보아오지만 볼수록 새롭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경루동은 새시대의 사회주의문명과 부흥의 높이를 제강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그날도 경루동정류소에 무궤도전차가 멈춰서자 사람들은 저마다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서있는 첫 아바트 5층엔 화력발전소에 다니는 우리 오빠네가 살고있어

수많은 음악신동들을 키워낸다

《경상유치원에서》

지난 7월 14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경상유치원을 찾으신어 훌륭한 음악신동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날이다.

그때로부터 나라의 종합적인 조기음악교육기지로 이름 높은 경상유치원에서는 수많은 음악가후비들이 자라났다.

2016년 5월에 진행된 제24차 소췌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참가한 마신아는 뛰어난 피아노연주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등상을 쟁취하였으며 제9차 모스크바축전과 제9차 라흐마니노브명칭 국제피아노콩쿨, 제10차 국제청소년음악가콩쿨 피아노부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곳 유치원의 유별미어린이는 제56차 슈만국제청소년 피아노콩쿨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제10차 싸포노브명칭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에서는 최우수연주자에게만 주

해주었고 정류소에서 내려야 할 사람들도 우정 앞쪽으로 걸어나가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며 축하의 말을 하고서야 내리었다.

손님들로부터 뜻밖의 축하를 받게 된 운전사는 어름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축하합니다!》

퇴근길 무궤도전차안에서 오간 이 말은 나의 가슴속에 격정의 세한 파도를 일으켰다.

누구나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니면서 운전사의 수고에 대해 깊이 느끼지 못했고 또 운전사 역시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한초소에서 묵묵히 조국을 받들어온 사람들을 애국자, 시대의 선구자로 금방씩에 잊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한 피타는 노력과 탐구과정

이들은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 《신비경》(동물원)을 개발하여 전국의 유치원들에 도입하였다.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두뇌전, 실력전도 힘있게 벌어져 35명의 교양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인민교원, 공훈교원들이 배출되었다.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수중히 여겨 키워주고 품어주며 더 활짝 피어나라고 사랑의 자양분을 헌껏 부어주는 이곳 유치원이야말로 세계를 놀래우는 음악신동들의 행방의 요람이다.

이런 훌륭한 신동들이 떠메고나갈 공화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본사기자 림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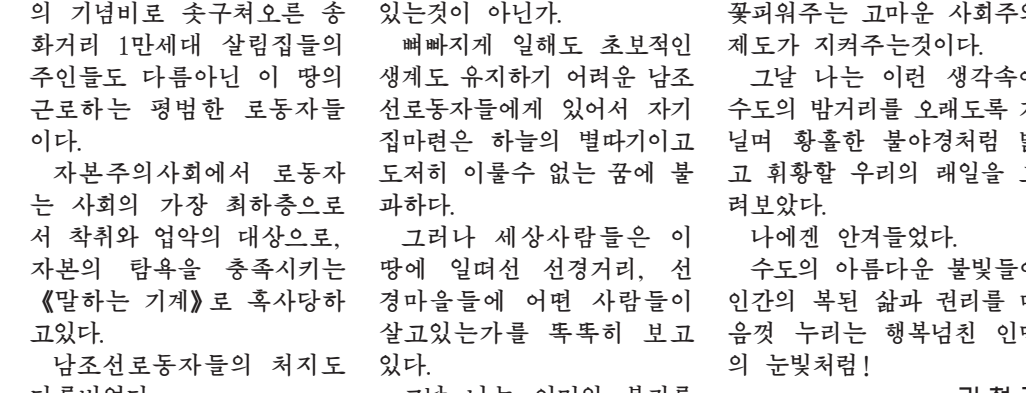
한 피타는 노력과 탐구과정에 이들을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 《신비경》(동물원)을 개발하여 전국의 유치원들에 도입하였다.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두뇌전, 실력전도 힘있게 벌어져 35명의 교양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인민교원, 공훈교원들이 배출되었다.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수중히 여겨 키워주고 품어주며 더 활짝 피어나라고 사랑의 자양분을 헌껏 부어주는 이곳 유치원이야말로 세계를 놀래우는 음악신동들의 행방의 요람이다.

이런 훌륭한 신동들이 떠메고나갈 공화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본사기자 림광훈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림흥동에서 발굴된 고구려유물유적들

우리는 고구려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 대성구역 림흥동으로 향하였다.

일대에서는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부와 2개의 고구려유물(1호, 2호), 벽돌로 축조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조각, 질그릇조각 등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 보존유적으로 등록된 림흥동고구려유물 1호와 2호를 돌아보았다. 이 유적들은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림흥동고구려유물 1호의 내부와 4 각방들과 발굴된 유물들

다음 정4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우에 4각추모양으로 다듬은 돌들로 처음에는 8각형, 다음에는 원형의 평면을 이루게 벽체를 쌓아올렸다고 한다.

발굴당시 유물들에서 돌바둑판조각, 기와조각, 질그릇조각, 쇠가마조각, 수레갈통쇠조각, 솥뚜껑, 참빗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물에서 지하수를 다시 펴와하였다는 것과 세척에 편리한 나무방틀의 사명을 해명함으로써 고구려시기 유물에서의 수질제고기술도 밝혀졌다고 말하였다.

장승영

2021년 10대 최우수교원

함흥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교육자들속에는 함흥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도 있다.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교육자들속에는 함흥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도 있다.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교육자들속에는 함흥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도 있다.

본사기자

혈분의 자욱을 남긴 지사들



황해남도 재령에서 태어난 라석주는 16살에 사립보명학교에 들어가 4년간 공부하였다.

라석주

서 극악한 식민지총독통치를 실시하자 이에 분격하여 23살 나던 해 봄에 처자를 데리고 북간도에 들어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중국국민당군대 중대장으로 있었다.

그후 의령단에 들어간 그는 일제의 식민지적착취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식주식회사》를 파괴할 목적으로 1926년 12월 국내로 들어왔다.

속담과 뜻

- ◆ 눈먼 말 타고 벼랑으로 간다. 앞을 잘 보는 눈 성한 말을 타고 벼랑으로 간다 하여도 위태로운 일인데 앞을 못보는 눈먼 말을 타고 갈 아닌 벼랑으로 간다는 뜻으로서 매우 위험천만한것을 함을 비겨 이르는 말.

권강상식

고열람음료와 물. 커피, 차, 과일즙은 물을 대신할수 없다. 이런 음료에는 물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기타 물질을 함유한 용액에 불과하다.

자신도 못알아보는 글

한 재상이 글을 쓸 때 범 다 갈겨쓰기를 좋아하였다. 한번은 흥분한김에 손이 움직이는대로 붓을 휘둘렀는데 그는 글내용보다도 《붓끝에서 뿜어 나오는 붓의 움직임은 좋으나》는 시구절을 생각하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식주식회사》를 습격하고 일본인 7명을 살상한 이 사건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마지막발명품 (2)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과학이나 기술은 천한 일로 여겨 판심조차 돌리지 않았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결에서 듣고있던 다른 한 신하가 머리를 조아렸다. 《장영실은 글도 알고 기술도 높고 무슨 일이나 막히는 데가 없다는 소문이 지금 널리 나돌고있습니다.》

《소인 장영실이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들고 대령하였사옵습니다.》

《동래현에 사는 판노라?》 세종은 다소 미덥지 못하다는듯이 눈을 치켰다. 《경이 그 동래현 판노를 직접 보았는가?》

《상감마마, 소인은 아무 재간도 없는 비천한 몸이옵니다. 감히 상감마마앞에서 어찌 고개를 들고있으리까.》

《상감마마, 소인은 아무 재간도 없는 비천한 몸이옵니다. 감히 상감마마앞에서 어찌 고개를 들고있으리까.》

니 공조참판 등과 더불어 기술을 아끼지 말고 힘써주기를 바라노라.》



어떠하오? 신하들은 약속이나 한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영실은 글도 알고 기술도 높고 무슨 일이나 막히는 데가 없다는 소문이 지금 널리 나돌고있습니다.》

《지당한 말인줄로 아옵나니.》 다른 신하 한사람이 또 절절히 부르짖었다.

《판인이 판직을 주는 법도 그르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영실의 재주를 귀중히 여길뿐이요. 그 한사람에게 미미한 말직 한자리 맡긴다 하여 엄정한 법도가 허물어질리가 있겠소.》

《장영실은 동래현의 천한 판노요. 어미는 기생이온데서 뿜어낸 판직을 주어 어루만지면 장차 노비천역들이 감히 사대부의 반열에 끼여들려 할것이온즉 그 폐단을 어찌 막으리까.》

《판인이 판직을 주는 법도 그르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영실의 재주를 귀중히 여길뿐이요. 그 한사람에게 미미한 말직 한자리 맡긴다 하여 엄정한 법도가 허물어질리가 있겠소.》

본사기자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대성산뚝향나무



대성산뚝향나무는 본래 1600년경부터 남포에서 자라던것을 1959년 중앙식물원에 옮겨심었다.

이 나무는 모양이 보기 좋은뿐 아니라 향기롭다. 대성산뚝향나무는 특향 나무의 꽃대수명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